

초고령사회 日은 지금 '종합' 붐

잔서(殘暑)가 가시지 않은 지난 일요일(24일) 오전. 단체관광 출발지로 애용되는 일본 도쿄역 근처의 한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느 투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백발의 참가자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 이 투어는 잘 죽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종합(終活) 버스투어'다. 한국의 '웰다잉'에 해당하는 종합은 최근 일본 고령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투어 상품까지 등장했다.



장의시설을 둘러보는 참가자들 '종합버스투어' 참가자들이 지난 24일 일본 도쿄미나토구에 있는 장의시설 '고메키사 다카나와회관'에 있는 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엔딩 드레스 입고... 무덤친구 찾고 '웰다잉' 관광버스 투어에 빠진 일본

이날 투어에 참가한 인원은 33명. 혼자 참가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평균 연령은 60대. 여성이 85%가량이다. 카운슬러도 동행해 종합과 관련한 조언을 해줬다. 호텔 뷔페를 포함해 도쿄 도심의 종합시설을 돌아보는데 참가비는 1인당 8980엔(약 9만원)이다.

맨 먼저 찾아간 곳은 '종합페스티벌'이 열린 도쿄 하마마쓰초 '종합페스티벌'은 장례 관련 기업들이 만든 종합카운슬러협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한 박람회다. 지난해에는 2100명이 방문했지만 올해는 부스도 45개로 늘어났고 방문객도 지난해보다 4~5배 늘었다. 사전에 특별 입장권을 받은 투어 참가자들은 1시간 20분 동안 뿔뿔이 흩어져 부스를 꼼꼼히 돌아봤다. 수의 대신 입는 '엔딩 드레스'를 판매하는 회사, 전문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대동해 영정 사진을 찍어주는 시니어 전문 사진관, 유품정리 전문 회사 등 다양한 업체가 있었다.

오후 1시 30분. 점심을 먹은 관광객들은 도쿄 마나토구의 한 종합장례시설로 향했다.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을 두루

백발 참가자의 비중 압도적
1인당 참가비용 9만원대

유품정리회사·영정 사진관 등
종합 박람회 부스만 45개

후손없이 관리하는 묘지 완관
장례식 경험 '생전식'도 치러

갖추고 있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곳은 도쿄 도심에 위치해 인기가 좋다. 후손이 없어도 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영구 공양 무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묘지 1기(60개)는 완관됐고 2기는 100개 중 60개가량이 이미 팔렸다. 1인용·2인용·4인용이 있고 애완동물도 함께 분할할 수 있다. 13년이 지나면 납골당에 안치한 뒤 10년을 더 보관하고 그 후에는 다른 망자들과 합사해서 계속 절에서 공양을 재내준다. 2인 기준으로 최소 150만엔(약 1500만원)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참가자들은 진지한 얼굴로 들었다.

투어에 참석한 오마루 아이코(56·가명·여)는 "아이가 없어 죽고 난 뒤에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또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시오카 쓰토무(73·가명)는 "자식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다. 장례식에 필요한 현금 정도는 제대로 남겨 놓고 싶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종합 붐이 일면서 일본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장례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합버스투어'를 기획한 여행사 포케카무클럽의 이와사키 마미코는 "남편과 함께 묻히고 싶지 않은 여성들은 무덤에 같이 들어갈 '무덤친구'(하카토모)를 구하기도 한다."

또 '생전식'(生前式)이라고 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장례식을 미리 경험해보는 사람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유골을 뿌리거나 우주에 유골을 뿌리는 상품도 있다고 귀띔했다. 종합카운슬러 고이즈미 사토시는 "1인 가구가 급증해 자신의 사후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이들이 주로 종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超高齢社会の日本は、今「終活」ブーム

残暑が消えていない日曜日(24日)午前。団体観光の出発に愛用されている東京駅近くの駐車場に人が集まり始めた。通常のツアーとは異なる点があるなら、白髪の参加者の割合が圧倒的であるということ。このツアーは、よく死ぬことを学ぶために集まった「終活バスツアー」だ。韓国の「ウェルダイン(Well-dying)」に該当する終活が最近日本の高齢者の間で人気を呼び、ツアーまで登場した。

この日のツアーに参加した人数は33人。一人で参加した人が半分以上だった。平均年齢は60代、女性が85%ほどである。カウンセラーも同行して終活に関する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た。ホテルのビュッフェを含む東京都心の終活関連施設を回って見るの参加費は一人当たり8980円(約9万ウォン)である。

まず第一に行ったのは、「終活フェスタ」が開催された浜松町。「終活フェスタ」は、葬儀関連の企業が集まった終活カウンセラー協会が昨年から開催された博覧会である。昨年は2100人が訪問したが、今年はブースも45個に増え、訪問者も昨年より4~5倍増えた。特別招待券をもらったツアー参加者は、1時間20分の間バラバラにブースを入念に見て回った。「エンディングドレス」を販売している会社、プロのヘアとメイクアーティストを同行して遺影写真を撮ってくれるシニア専門写真館、遺品整理の専門会社など、さまざまな企業があった。

午後1時30分。昼食を食べた参加者は、東京・港区にある総合葬儀施設に向かった。葬儀場と墓地、納骨堂を兼ね備えていた。昨年1月にオープンしたこちらは、東京都心に位置して人気が高い。子孫がなくても墓地を管理できるように「永久供養墓」を運営している。墓地1期(60個)は完売され、2期は100個のうち60個ほどがすでに売れた。1人・2人用・4人用があり、ペットも一緒に埋葬されることができる。13年が経過すると、納骨堂に安置した後、10年保管し、その後は他の亡者たちと合祀して継続節で供養を過ごしてくれる。2名で最低150万円(約1500ウォン)という関係者の説明を参加者真剣な顔で聞いた。

ツアーに参加した王丸愛子(56·仮名·女)さんは、「子供がいなくて、死んだ後に墓の見守ってくれる人がいない。両親もいつ亡くなってもおかしくないので事前に準備すべきだ」と言う。西岡勉(73·仮名)さんは「子供たちに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葬儀に必要な現金の程度は残しておいていきたい」と述べた。

3年前から終活ブームが起き、日本にはいくつかの新しい葬儀文化が示されている。「終活バスツアー」を企画した旅行社ぽけかる倶楽部の岩崎真実子さんは「夫と一緒に埋め込まれたくない女性は墓と一緒に入る「墓友」を求めることもある。また、「生前式」として、自分が生きている間に葬儀を事前に経験してみる人もいる」と雰囲気伝えた。最近では、ヘリに乗って遺骨をまいたり、宇宙に遺骨をまく商品もあると耳打ちした。終活カウンセラー小泉悟志さんは、「1人世帯が急増して、自分の死後の世話をする家族がない方々が主に終活に乗り出している」と説明した。

文·写真東京キム·ミニ特派員haru@seoul.co.kr